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지원사업(일반)

심의 총평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일반 공모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선정규모보다 약 1.5배 확대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균형적인 지역 안배를 위해 심의위원들은 모든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년간 많은 단체들이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축적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육적 방법론과 접근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문화소외 지역을 검토하였지만 연속적 지원성과에 대한 의문으로 선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성찰적·과정 중심적·미적 체험교육의 가능성, 프로그램 구성 원칙과 예술철학의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 여부, 조합 바꾸기 방식이 아닌 예술적인 커리큘럼 기획,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예술교육의 다양한 상상력과 실험이 돋보이는 방식의 사업 위주로 발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모니터링의 결과가 좋았던 단체들 경우 일부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일방적인 정보전달과 단순체험위주의 작업 등 기능교육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규모의 단체가 발굴되어 지원되는 만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다함께 공유하고, 재난위기에 위축되지 않으며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가 선정단체들의 고민을 먼저 경청하고 당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위원

주성진

김영아

박계리

설동준

하정호